

GIST, 학생 창업리그 《GRAVITY 2026》 참가자 모집

- GIST, 4대 과기원 연합 학생 창업리그 'GRAVITY 2026' 참가자 모집...6월 10일까지
- 딥테크 분야 예비·초기 창업팀 발굴부터 호남권 혁신창업 거점 기반의 연구성과 사업화, 개념검증(PoC) 실증, 글로벌 진출 연계까지 창업 전주기 지원 강화
- 총 140개 팀 선발 및 우수팀 10개 대상 해외 액셀러레이팅 포함 최대 2억 원 규모 지원



▲ GIST 캠퍼스 전경.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KAIST, DGIST, UNIST와 공동으로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창업 통합리그 'GRAVITY(그래비티) 2026'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GRAVITY 2026'은 과학기술 기반의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및 초기 창업팀을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연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원 연합 창업리그이다.

참가 대상은 4대 과학기술원(GIST·KAIST·DGIST·UNIST) 소속 학부생·대학원생·졸업생을 포함한 예비창업팀 또는 초기 창업팀(창업 5년 이내)으로, 참가 신청은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기관별 온라인 접수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단, DGIST는 학사 일정을 고려해 접수 기간을 6월 15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리그는 4대 과학기술원 기반의 딥테크 창업 생태계를 하나의 리그 구조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한 창업 경진대회를 넘어 실제 창업과 투자유치를 통한 글로벌 진출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를 대상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GIST는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케어 ▲항공우주 ▲로보틱스 등 딥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학생 창업팀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6
4대 과학기술원
창업리그**

모집기간 2026.05.21(목) - 06.10(수) 16:00

지원대상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 소속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을 포함한(예비)창업팀으로,
통합공고일('26. 5. 21.) 기준 예비창업자(팀) 창업 5년 이내 초기창업자(팀)

* 단, 4대 과학기술원 졸업생의 경우 통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졸업자에 한함
(예) 학부 졸업생은 학부생 트랙, 대학원 졸업생은 대학원생 트랙으로 신청

아이디어가 중력을 거스를 때, 세상은 바뀝니다.

GRAVITY

KAIST | UNIST | GIST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DGIST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프로그램 상세 안내

▲ 4대 과기원 딥테크 학생 창업 통합리그 《GRAVITY 2026》 포스터

이번 리그는 학부생 리그와 대학원 리그를 구분해 운영된다.

기관별 예선·본선을 거쳐 4대 과학기술원 통합 본선·결선으로 이어지는 단계형 구조로 진행되며 최종 결선에서는 학부생리그 5팀, 대학원리그 5팀 등 총 10개의 우수 창업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결선을 통해 선발되는 총 140개의 팀은 창업활동비, 전문가 멘토링,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맞춤형 멘토링, 창업활동비 등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수 창업팀에게는 글로벌 벤처캐피탈(VC) 연계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된다. 또한 멘토링, 투자 유치, 사업화, 해외 진출 등 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총 2억 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GIST는 창업혁신진흥원을 중심으로 창업혁신전략센터, 창업진흥센터, 기술사업화센터를 통해 학생 창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왔다.

특히 ▲창업교육 ▲창업기초실습 ▲경진대회 ▲모의·실전 창업프로그램 ▲산학연 전문가와 연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2025년 기준 특허출원 251건, 특허등록 177건, 기술료 수입 20억 등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산학협력 협의체 운영과 산업체 애로 기술 지도를 통해 창업 이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사업적 문제를 해결에 앞장서고 기술 사업화 성과를 고도화하고 있다.

GIST는 축적된 창업 교육·보육 및 사업화 지원 역량과 산학연·글로벌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이번 통합 리그를 계기로 호남권 딥테크 창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임기철 총장은 "GRAVITY 2026은 4대 과학기술원의 독보적인 연구 역량과 창업 인프라를 융합해, 학생 창업팀이 글로벌 딥테크 시장을 선도할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실전형 창업 플랫폼이다"며 "GIST는 AI와 첨단기술 분야의 실증 중심 창업 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호남권 혁신 창업 생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한편, 학생들의 우수한 연구성과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